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수기집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은 창의적 잠재력이 뛰어난 소수정예의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처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영재 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특허청과 POSTECH이 협력하여 설립한 교육 기관입니다.

본 교육원은 미래 기술을 주도하는 창조적 영재기업인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가치창조, 가치획득, 가치전달의 3가지 핵심 역량을 갖추고 파괴적 미래기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어 온 영재기업인 교육,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 드립니다. 자신의 꿈을 찾으러 온 아이들의 가슴 설레는 이야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영재기업인 교육,
그 첫 번째 기록.

대학교육에서 '발휘되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의 힘

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다

교육생 수기
2기/강병욱

고등학교 때 문과를 선택했던 나는 현재 미국의 Rice University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교육원의 교육이 문과 학생이었던 나를 이공계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었고, 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당시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할 때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의 전문 상담위원들과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는데, 이런 분야는 교육원 외에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다. 실제로 고3 때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대학 입시 때 당시 받은 특허와 2년간 받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미국 대학들은 보통 장기간 활동, 즉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과 같은 교육활동 등을 매우 중요시 한다.), 결국 내가 현재 다니는 라이스 대학에 합격한 것은 물론 10만 4천불 장학금과 학교 전체에서 12명을 선발하는 연구장학생(Century Scholar Program)에도 선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학을 다니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 Bioengineering이라는 첫 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생명공학의 기본 공학원리에 대해 배우고, 6-7명의 학생들과 함께 그룹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수업이었다. 총 세 번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결핵 검사를 찾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폐의 다양한 기능을 수학적 으로 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프로젝트는

급성 천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몸에 탈부착 가능하거나 이식이 가능한 탐지기를 디자인 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점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었다. 교육원에서 배운 자료조사를 하는 방법, 자료조사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점 등은 내가 미국학생들과 그룹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교육원에서 배웠던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은 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기적으로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할 때에는 교육원에서 강조하였던 Function기반의 사고법을 통해 문제의 근본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조사를 할 때에도 팀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달랐는데, 이 때 내가 제시한 방향이 지도교수에게 인정을 받았고 우리 팀은 최종적으로 내가 제시한 방향으로 자료조사를 하였다. 결국 자료조사를 할 때 방향을 잘 잡고, 파괴적 혁신 이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능력을 통해 팀에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고,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음에도 팀을 대표해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4학년 때 듣게 되는 Senior Design수업에서는 실제 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에도 교육원에서 받았던 교육의 힘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끊임없는 질문과 관심으로 성장
좌절하지 않는 힘을 만들어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엮는다=포기한다? 엮는다=새롭게 도전한다!
더욱 성장하기 위한 기회

교육생 수기
4기 / 이혜우

교육원을 들어오기 전에는 '너의 꿈은 무엇이니?'라고 물으면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라고 말해왔다. 정말 하고 싶어서 대답한 꿈은 아니었다. 그냥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만났고, 이것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꿈을 찾아 드립니다,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라는 교육원의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어떻게 이루어준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교육원이 내 꿈을 찾아주고 이루어주지? 이걸 내가 정하고 내가 이루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원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샌가 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꿈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앞으로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육원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너의 가치관은 무엇이니?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니?'와 같은 질문들 말이다. 교육원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곧 도전하는 힘을 길러 준 것과 같다. 앞으로 나의 꿈이 또 바뀔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원에서 또 한 가지 손꼽고 싶은 것은 바로 네트워크이다. 같은 기수 내에서도 공통된 관심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학교친구들과는 나눌 수 없었던 진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같은 기수뿐만 아니라 1, 2, 3기 수료생들을 만나면서 인생 선배의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대학생이 된 선배들로부터 대학교나 전공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각 대학교의 장점, 수업방식, 입시 방법, 그리고 전공을 위해 어떤 내용을 미리 배워 놓는 것이 좋은지와 같은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같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생'이기에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원은 잘하거나 못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2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금의 나는 많이 성장했고 또 스스로 변화했음을 느끼고 있다. 마냥 좋은 대학교, 안정적인 직업만 추구하며 공부했던 나에게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만들어 주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힘을 길러 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교육생 수기
4기 / 바수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엮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만두다', '망쳤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는 '엮는다'의 새로운 정의가 있다.

교육원의 교육을 받다보면 개인과제나 팀 프로젝트 수행 중에 주제를 자주 엮게 된다. 교육원에서 엮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체제 또는 질서 따위를 완전히 새로이 뒤바꾸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엮는다라는 것은 곧 더 발전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다. 여러 번 진행되고 있던 일을 엮고 새로 시작하는 경험을 반복하며 느끼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점이다.

교육원에 지원할 때 별다른 관심분야가 없었다. 자기소개서에서 관심분야에 대한 작성 항목을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적정기술이었다. 솔직히 교육원에 지원하기 전까지 적정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1D, 2D 과제를 하면서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적정기술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때는 적정기술이 나의 관심 분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른 관심 분야를 찾아보려 하지 않고, 오직 '적정기술'만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들었다. '나는 정말 적정기술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고민은 고등학교 입학 후 더 커져만 갔다. 나의 소명과 가치관을 적정기술이라는 주제에 맞춰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적정기술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나는 꿈을 이루게 하는 수단을 꿈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적정기술은 최종 꿈이 아닌 수단일 뿐이며, 수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기에 적정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했었던 것이다.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주제를 여러 번 수정하면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꿈을 찾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원의 1D 교육과정 중 가치관 정립, 흥미 및 적성 탐구, 소명을 찾는 과정은 그때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도 나를 찾고, 꿈을 찾아 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진행하던 일을 엮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교육원에 감사드린다.



볼수록 매력 있고 알수록 신이 나는 나의 친구, 교육원을 소개합니다

친구처럼 나를 응원해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Thank you"

교육생 수기
4기/조승연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보면 볼수록 더 예쁜 사람이 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나에게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이 딱 그렇다. 답살 돋는 애정표현이지만, 이것이 내 진심이다. 사실 처음에는 교육원의 특별한 교육들, 한 달마다 찾아오는 벽찬 과제들과 만만치 않은 탐구주제들이 낯설기만 했다.

‘그래도 조금은 놀 수 있겠지!’ 하고 참석한 여름 집중교육 또한 내게 새로운 충격이었다. 일주일 안에 ‘function, 9windows, IFR’와 같은 개념들을 학습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팀원들과 협업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생소한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집중교육에서의 날들이 하루, 하루 지나갈수록 교육원은 내게 감동을 주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해 몸을 바쳐 애써주시는 조교 선생님들을 보고 감동하였다. 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조교 선생님들 덕분이었다. 칭찬과 솔직한 조언을 번갈아가며, 나태해지려 할 때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주었다. 또한,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교육원에서 경험한 두 번째 감동은 나의 잠재력을 재발견했다는 것이다. 오직 프로젝트 과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다. 평소 한 가지에 집중을 잘 못 한다고 생각했고, 과제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나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성장이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눈물과 좌절을 겪어가며, 어렵게 완성한 프로젝트를 칭찬받았던 그 순간은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했다.

세 번째 감동은 나의 관심 기술과 학과를 드디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의 꿈은 적정기술 공학 설계 디자이너였고, 적정기술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문성을 과연 어느 분야에서 뽐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또한, 교육원에서는 2년 동안 하나의 관심 기술 분야를 깊게 탐구해야 했는데,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새 관심 기술 분야는 환경공학기술, 그리고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과는 신소재공학과로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작정하고 ‘나의 관심분야를 정하자!’ 하며 인터넷을 뒤져본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육원이 제시하는 과제와 탐구 주제, 조사할 자료들을 투덜거리면서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그 비결이었다. 이제 남은 1년 반 동안은 관심분야에 집중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열혈 교육생이 되어야겠다.

교육원은 내게 새로운 사고법을 가르쳐 주었고, 관심분야를 발견하도록 해 주었다. 또한, 내가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한계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Thank you, 교육원! Fighting, 조승연!



소망이 나를 바꾼다, 미래를 내가 바꾼다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교육생 수기
2기/김수빈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세계적 권위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남긴 말이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을 처음 듣고, 무척 공감하고 있었지만 내가 창조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몰랐다.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겠다는 큰 꿈이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마음은 나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으로 이끌었다.

교육원은 무척 특별했다. 첫 번째 과제가 ‘소명 선언’이었다. 나의 흥미, 적성, 비전 등을 성찰하고 소명을 선언하는 과제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장래희망은 수단이란 것을 깨달았다. 교육부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했다. 이 과제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인가, 이것이 정말 내 가치관과 적성, 성격에 맞느냐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나의 꿈이 뚜렷한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은 ‘Develop the future’라는 테마로 공부하는 학기였다. 나는 미시/거시 환경 분석, 로드맵 작성 등 교육 과정을 통해 광고, 기획, 전략 수립, 마케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사하며 꿈을 구체화했다. 교육원에서 한 창의력 검사에서 내가 ‘정교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응용하고 그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내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마음속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온라인 교육 과제로 ‘스무 살에 알았다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책 속의 인물들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들이 도전하는 대상은 불확실했지만 마음가짐은 확실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는 것이고 내 최종 꿈에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마음가짐. 이 책을 읽고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통찰력, 믿음, 생각으로부터의 탈출, ‘이런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결심과 동시에 내가 꿈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알게 되었다.

교육원에서 했던 기업인 인터뷰를 통해 ‘내가 왜 경영을 하려고 하지?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교육부 장관이라는 꿈도 과학자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하고 싶어서 정한 것이고, 경영도 나의 전략과 기획으로 더 나은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양한 분야의 공부와 독서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즉, 나의 최종 지향점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경영인의 마인드로 끌어와 정교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내가 창조할 미래가 무엇인지 일찍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나의 미래를 펼쳐 나가는데 든든한 동기가 되어주고 있다. 수기를 쓰고 나니 교육원 홈페이지의 이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꿈을 찾아 드립니다.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나는 영재기업인이다(I'm CEO!)

미래를 이끌어가는 희망

교육생 수기
3기/강동협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2년 전 가졌던 의문이었다. 막연하게 ‘과학자’라는 꿈을 정해만 두었고, 꿈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오직 공부뿐이었다. 그나마도 이것이 꿈을 위한 노력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알게 되었다.

2년의 기본 과정 중 가장 기억나는 프로그램은 바로 창업 시뮬레이션이다. 난생처음으로 기업을 운영해보고 매출도 받아 보았다. 대출금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투자 1위로 엄청난 수익을 낸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흐뭇하다. 덕분에 우리 기업은 우수 기업으로 거듭났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팀의 좋은 점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 시킨 것이다. 아이디어가 좋은 그렇지 않은 간에 팀원들은 서로의 제안을 격려하고 믿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경험한 이번 집중 교육의 백미였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팀만이 아니라 모든 영재기업인의 공통된 자세가 아닐까 싶다. 다른 이들이었으면 무시하거나 지나쳤을 말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존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 시키고 제안하는 자세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우리들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중심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타인에게 강요하려 한다. 하지만 영재기업인은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며 책임을 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제안하고 다른 이들의 생각과 조율하고 보완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나는 영재기업인이다.

재미있는 점은 내가 교육원을 다니면서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찾은 것이다.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의 발표가 다른 친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친구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며 다가서는 모습에서 나의 숨겨진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평상시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알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나는 교육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러한 재능을 찾고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원의 장점은 기업 경영, 혁신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더불어 자신의 숨어 있는 재능을 찾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기회에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2년을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고민을 함께했던 친구들(동생, 친구, 형, 누나 모두)과 헤어져 추억으로 회상해야 한다는 것이 왠지 모를 슬픔에 젖게 한다. 벌써 보고 싶다는 마음에 가슴이 찡하다. 모두들 교육을 받을 때는 머리 아파했지만 정작 끝나고 나면 ‘다른 과제는 나오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처럼 왠지 나는 친구들과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교육원을 수료하여 친구들과 다시 만날 기회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좋은 추억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어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간다.

교육원 덕분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긍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헤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했던 미래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원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집중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 모든 걸 견뎌낸 지금 나에게 남은 가장 큰 것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소중한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POSTECH 영재기업인, 미래를 이끌어가는 희망!

아무런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나’를 만들어준 곳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다

교육생 수기
3기/민태규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무엇인가를 망설일 때면 이제는 습관처럼 떠올리는 메세지다. 강연회를 갈지 말지,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여행을 떠날지 말지 이러한 고민 앞에 지금의 나는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린다. 도전하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고마운 곳, 바로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이다.

나는 2년 전만 해도 여느 학생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청소년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고, 공부하는 것도 대학을 잘 가기 위해 하는 것이라 여겼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PC방에 갔다. 모든 게 당연하기만 했다. ‘너는 학원밖에 안 가나.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니?’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꿈이라곤 학기 초에 나눠주는 학습지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쓰는 정도가 다였다.

평범했던 나에게 처음으로 ‘너의 꿈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봐 주었던 곳,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었던 곳이 바로 교육원이다. 교육원은 당연하게만 여긴 일상에 치우쳐져 내 안에 꼭꼭 숨겨 두었던 꿈을 다시 꺼낼 수 있는 힘을 선물해주었다. 교육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진심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다. 나는 ‘IT기업의 CEO’가 되고 싶다!

정말로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기니 몸도 마음도 하루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존경하는 롤모델의 자서전을 읽고, 강연회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으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꿈을 이룬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 하고자 했던 일에 과감히 도전할 줄 알았다.

교육원은 꿈 앞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선물해주었다. 꿈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CEO의 강연회에

가는 것이 좋을지, 수학문제를 푸는 게 좋을지, IT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학원 숙제를 하는 게 맞을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꿈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나의 하루하루는 점점 특별해져 갔다.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부모님의 ‘안 돼!’, 선생님의 ‘안 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 들려올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본받고 싶은 멋진 교육원 친구들의 응원과 교육원을 통해 갖게 된 진심어린 꿈이 나를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이끌어주었고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교육원은 나에게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해주었다. UCC를 시작할지 말지, 홀로 부산여행을 갈지 말지 고민할 때 ‘해보자, 하고 싶은 게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도전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용기 있는 선택을 권하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다.

2년의 교육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잠시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온 지금, 지난 소중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교육원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본다. 정말이지 아찔한 마음에 눈을 감아버렸다. 무척이나 평범한 학생이었던 내가 교육원을 만나고 참 특별해졌다. 밤마다 떠올리던 가슴 뛰게 하는 꿈이 생겼고, 꿈 앞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법을 배워갔다. 더 이상 공부도 무작정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 그 자체만으로도 공부하는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었다.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특별하게 보낼 줄 아는, IT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민태규가 되었다. “너는 참 특별한 친구인 것 같아! 본받고 싶어.”라는 말을 듣게 해준 나에게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상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항공 우주인을 향한 첫걸음

교육생 수기
2기/김수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어라.”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포스텍 영재 기업인교육원에서 나는 막연하게만 꿈꾸고 있던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관심분야인 항공우주분야를 더욱 깊이 공부하고 세기기술을 조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기업가 정신 기르기’라는 과정이 있는데, 관심분야의 기업가를 인터뷰해야 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항공우주분야는 대체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이기에 인터뷰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몇몇 대기업이 떠오를 뿐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일본에서 CAMUI Space Works를 설립하여 하이브리드 로켓을 개발하신 우에마쓰 전무님과 인터뷰에 성공하여 과제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우에마쓰 전무님은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분일 뿐 나와는 어떠한 인맥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나에게 훗카이도까지 찾아갈 시간적, 금전적 여유는 더욱이 없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구글 검색을 통해 우에마쓰 전기의 홈페이지를 찾아내어 정중히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보냈다.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은 물론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평소 나는 자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To be’에 머무르지 말고 ‘To do’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읽고 경험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가 인터뷰는 나에게 한 차원 높은 To do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시간, 공간, 돈, 인맥의 제약을 넘어서서 이루어낸 성과였기에 인터뷰 경험은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훌륭한 멘토를 만나게 해주었다. 또한 성공을 반신반의하며 도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체험하며, 하고자 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했다. 내가 두드리자, 길이 열린 것이다.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활동은 영재기업인 자격으로 선발되어 CEO 포럼과 글로벌 인재포럼에 참석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각 분야의 리더 분들을 뵈고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는 탁월한 리더 분들의 고견을 바로 눈앞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은 매 순간이 소중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분들을 본보기 삼아 나의 꿈에 끝까지 집중하며 더욱 열심히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원 과정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교육원에서 나와 같이 적정기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 WAW라는 적정기술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WAW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 만나게 된 교수님의 도움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약에 미약하나마 작은 발걸음을 보태기 시작했다.
교육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현재까지 구체화한 나의 소명은 항공우주분야의 기술 진보에 일조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 과정에서 세상을 더 선하게 바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비행을 꿈꾼다.

내신은 9등급, 발명은 1등급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힘을 배우다

교육생 수기
2기/김재민

나는 내신 9등급으로 학교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단국대학교에 진학하여 나의 재능을 키워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빠르게 나의 재능을 찾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나의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 덕분이었다.
아버지께서 카센터를 운영하셔서, 나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나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을 설득해 ‘우주 소년단’에 들어갔는데, 모터와 건전지를 이용해 직접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중학교 때부터는 발명품을 만들어 과학 대회에 출전했고, 연달아 입상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 덕에 부족한 내신 성적에도 불구하고 ‘발명 특기자’로 선별되어,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보다는 발명에 더 흥미가 갔다. 나는 과감히 발명에 집중하기로 했고, 열심히 대회에 발명품을 출품했다. 각종 과학·발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나는, 올해 초 개최된 ‘전국 학생 과학 발명대회’에서 ‘전기절약 안전 전기 레인지’로 은상(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수상의 기쁨과 더불어 단국대학교에서 이 대회의 성과를 인정해주어 ‘창업특기자 전형’으로 수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다.
단 1명을 뽑는 전형이었고, 내신 성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낮아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그동안 나의 발명 실적을 인정받아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들을 얻기까지, 2년 동안 교육원에서 보낸 시간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창업에 성공하고, IP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CEO들의 강연을 듣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내가 꿈꾸던 창업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무엇을 창업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나는 교육원을 통해 현장의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지난해 집중 교육 때 ‘모글루’ 김태우 대표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회사를 꾸리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저도 ‘우연히’ 일을 이어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너스레 좋은 제안을 드렸다. 그 뒤로 반신반의하며 기다렸는데, 며칠 뒤 정말로 대표님께 연락이 왔다. 김태우 대표님 소개로 ‘아이 앤 컴바인’ 이민희 대표님과 연이 닿았고, ‘아이 앤 컴바인’에서 인턴을 하면서 많은 걸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회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육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얘길 들으면 의아할 때가 많다. 서로 “어느 학교 갈 거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고민하지만, “가서 뭐할 건데?”라고 물으면 당황하며 “일단 가서 생각하지 뭐.”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교육원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꿈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꿈을 향해 달린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의 삶과 내 꿈을 위해서는 이런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는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해주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다.
부족한 내신 성적으로 인재들이 모인 전자공학과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믿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세상에 ‘하지 않는 일’은 없지만, ‘안 되는 일’은 없다. 긍정의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꿈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365일,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김해수

구체적인 꿈을 발견해가는 곳,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교육생 수기
2기/김해수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2년의 기본과정, 6개월의 심화과정교육까지 약 2년 반 동안 나, 김해수는 완전히 달라졌다. 교육원은 배움은 물론 소중한 인연도 수없이 쌓게 해주었다.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인생의 경험을 선물해 준 곳이다. 교육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학교 안에서의 협소한 경험이 전부였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생각의 틀, 사고 체계가 학교 안으로 국한되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의식은 했지만, 현실에 안주하여 '학교 성적만 좋으면 되겠지' 하는 단편 사고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 선발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준비하게 되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하고 싶은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고민과 깨달음의 과정 중 교육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변화는 교육원을 다니면서 시작되었다.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통해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일찍부터 찾아서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친구들,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데 전문적인 지식까지 갖추고 있는 친구들, 동갑인데도 학습 면이나 생활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나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갔다. 또한 2년 동안의 기본과정을 거치면서 꿈을 발전시켜 나갔다. 마지막 집중 교육 직전에 제출한 마지막 온라인 과제였던 사업계획서는 최종 선발과 투표까지 거쳐 최종아이템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하는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꿈이 구체화되고 목표가 뚜렷해지자 나의 꿈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많은 기회와 경험을 가지게 된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기회도 있다. 많은 사람에게 비슷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교육원을 다니며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게 되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늦었지만 교육원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기회였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



꿈꾸는 알바트로스

창의적인 생각, 다양한 시선 그리고 도전 의식

교육생 수기
2기/김민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에 내가 기여할 수 있고, 생명공학기술 상용화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처음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수업을 시작하였다.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동안 교육원에서 받은 수업의 영향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시각이 구체화 되었고,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더불어 시스템개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처음에 관심분야를 나노기술로 정했다가 IT-NT-BT 융합분야에 매력을 느껴서 스마트 바이오센서/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바이오센서/칩은 샘플 전처리, 미세 유체제어, 마커고정, 센서, 신호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들의 기술이 접목되는 고도기술로 차세대 진단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동물이나 환경 분야까지 무한한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아이টে를 얻어 실시간 분석용 센서와 손상 없이 안전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 제작에 대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모의 창업도 해 보았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의 교육은 나에게 창의적인 생각, 다양한 시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해주었다. 기본과정을 마치고 심화과정 수업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분야에 대한 세밀한 탐구정신, 팀원과의 소통과 협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 시간을 맞추어 협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진행하였다. 특히 심화과정에서는 기술의 동향이나 시장을 모두 국내외 해외로 나누어 조사하게 되어 양도 방대하고 자료가 많아 정리하는 과정이 힘이 들었다. 고등학생으로서 학업과 과제를 병행할 때 더 신경을 써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어도 시간에 쫓겨 마무리한 적도 있었다. 특히 현재 국내의 기업들의 최신 동향특허를 검색하고 분석해야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깊이 있는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얻은 가장 귀한 것은 사람(人)이다. 3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여러 교수님, 멘토가 되어준 포스텍 형들, 그리고 함께 지난 3년의 과정을 공부했던 형, 누나, 친구들 모두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처음 기본과정부터 같이 공부했던 형들은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많이 하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제일 막내로 시작하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아직 심화과정을 1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포스텍에 진학하여 다시 만나고 싶다. 나에게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는 넓다? 세계는 좁다!

내 한계의 벽을 깨뜨린 경험

교육생 수기
2기/백다예

호주 글로벌 기업이 정신 역량 강화 워크숍은 내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배운 학문적 지식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갖게 될 세계관, 인생관을 바로 잡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것이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니 전에는 몰랐던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면서, 미래를 구현하는 기업가의 역량을 한층 더 신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의 피드백과 강의를 통해 Sustainable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 전에는 '과연 환경, 사회,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반면 이제는 이것이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주 간의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는 날, 우리팀은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아침을 시작했다. 발표를 마치고 드는 생각은, 역시나 아쉬움 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더라면 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또 다가올 만회의 기회가 있는지 모색해보며 나 자신을 다독거리며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게 되었다. 다른 팀들의 여러 프레젠테이션들을 보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이 기존의 다소 심심했던 아이템을 획기적으로 바꿔게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사회, 경제)을 도입한 영재기업인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동안 배운 수업들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아이템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key point 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매킨토시 교수님께서 우리의 아이템이 매우 좋다고 다시 한 번 칭찬해주셨을 때, 정말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서 시도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서양 사람들의 삶의 문화였다. 나는 교육생 대표로 도서관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침 일찍 도서관을 도착했을 때, 나를 맞아준 건 우연히도 내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연사인 Fredrick이었다. 그를 처음 보고 나는 문화적 충격을 금치 못했다. 토론이고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라 정장을 입고 온 나와는 다르게 스케이트보드를 탄, 한 개구쟁이 아저씨가 그 프로그램의 주최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까지도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문화적 충격은, 오후에 도서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내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필기하면서 강의를 듣는 모습에 이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와 비즈니스에 매우 관심이 많고,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문화적 충격이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세상은 좁다는 것이다.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재학생들과의 교류시간에 나는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의 국가에서 온 국제학생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것은 그들은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세계관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금전적인 상황을 떠나서 우리는 해외를 나간다면 무언가 대단하다는 전망의 눈길을 보내지만, 그들은 마치 부산에서 서울 가듯 세계를 오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특히, 매우 인상 깊은 세계관을 가지신 매킨토시 교수님과 차세대 인재가 가져야 할 세계관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기존에 내가 가졌던 짧았던 생각에 대한 반성이 들면서, 한국에서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

다소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2주 간의 프로그램, 차세대 영재기업인 글로벌 역량 강화 워크숍은 한없이 작았던 나 자신을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었던 나의 한계의 벽을 깨뜨리게 된 매우 감사한 경험이다. 앞으로 이 경험을 토대로 더 크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재기업인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교육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나의 꿈은 행동하는 꿈

내가 직접 설계하고 실천하는 꿈을 배우다

교육생 수기
1기/김윤우

중학교 1학년 당시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나의 재능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기계처럼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생명 공학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멋있어 보이는 꿈일 뿐이었다. 그런 내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합격한 뒤 새로운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교육원의 교육 방법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육과 다른 특별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교육 방법처럼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답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답을 유추하고 학생들의 생각이 답이 되는 교육이었다. 또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통제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했다. 신기하게 학생들은 통제하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의 교육 방법이 특별하고 말하고 싶다.

2년 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나의 꿈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교육 과정은 4D(Dream the future, Discover the future, Develop the future, Deliver the future)로 이루어졌다. 1D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2D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의 '기술적 가치'를 분석하며, 3D는 '사업적 가치'를 파악하고, 마지막 4D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 교육을 통하여 단순히 생물을 좋아해서 생명 공학자가 되겠다 했던 꿈은 3D 입체 장기 프린터를 이용하여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운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교육원은

학생들이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보통 학생들과는 다르게 교육원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놀더라도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대회에 나가서 성과도 얻어오는 등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찾아서 하곤 했다.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전국 청소년창업협회에 가입하여 운영진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혼자 버스타고 타지 못했던 내가 포항과 서울도 자주 오고가며 여러 박람회를 관람하거나 CEO 선배님과 형, 누나들을 만나는 등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글로벌 인재 포럼 참가활동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사람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친다. 5년이 지나 생각해보면 교육원은 나의 첫 번째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은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고, 나를 위해 고민하고 생각해주는 형, 누나들도 알게 되었으며 여러 CEO 선배님들도 알게 되었다.

교육원에서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나의 청소년기는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하는 목표에만 목매어서 살아가는 평범한 학생에 머물렀을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원을 설립하여 부족한 나를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 1기로 뽑아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 교수님, 형, 누나들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훗날 교육원이 원하는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갈 것이다.



교육생의 푹푹 튀는 이야기 TALK! TALK!

“구체적이지 못했던 꿈과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관, 소명, 내가 꿈꾸는 미래 등을 생각해보며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저의 생활모습,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만나보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은 소중한 경험이다. 내가 시작하게 될 벤처 기업의 CEO분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그 분들의 소중한 노하우와 생각들을 배울 수 있었다.”

“옛날에는 그냥 과학자가 되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주 항공 분야의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서 기술을 마련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가로 성공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꿈의 크기 또한 더 자란 것 같습니다.”

“영재기업인교육원은 강요하지 않는다.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한다.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내용들이 모두 정당한 것이다. 암시라는 정해진 틀 속에 감춰있는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제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저는 자유로워지고 또 진지해졌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게 보나 과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보상이 아닌 열정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실재에서 우려나온 그 경험들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는 것, 실패한 기업가의 열정과 꿈, 끈기가 크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왜 기업가가 되고 싶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내성적이었던 저를 좀 더 드러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바로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입니다.”



“영재기업인교육은 일상 생활속의 모든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창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주었다.”

“교육과정과 함께 진행된 성격기질검사, 행동평가, 창의력테스트를 통해 제 자신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고, 상담을 통해 부족한 점은 어떻게 바로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할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는 현재의 트렌드를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키워드이다. 이러한 사고력의 확대는 항상 깨어 있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자세는 영재기업인 모두에게서 관찰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영재기업인교육생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적 자원이자 네트워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팀 프로젝트에서 팀워크란 그냥 모든 것이다. 팀워크가 아닌 개인진이라면 POSTECH의 체계적인 교육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 내 결정의 기준을 정해가면서 버려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얻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뒤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제가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내고 있던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분을 쌓아가는 기회를 통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수 있었다.”

“암시에 치우친 현실에서 '나'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통해 내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나'에 대한 탄탄한 이해는 어떤 일을 접함에 있어서도 자신감과 나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생각 없이 하고, 외고 등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들어가고 취업 걱정이나 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했더니 눈앞이 어두워졌다.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열정이 무엇인지 나라는 인간이 누군지를 참 많이 치열하게 생각한 시간들이었다.”

“사람들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교육원 활동 이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단순히 명문 대학의 인기 있는 학과를 위해 공부했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나의 삶의 목표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고, 이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교육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교육원을 다니며 얻은 좋은 점으로 불안의 해소를 꼽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때에는 공부 자체가 내 미래였다. 하지만 영재기업인교육원의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공부가 미래 자체라는 게 아님을 깨닫고 나에게 맞춰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생동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2년 동안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리더의 역할, 팀워크의 중요성, 프레젠테이션 기술 익히고,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 생각의 큰 틀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중요한 자선이 되었다.”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명확해졌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건 행운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키워낸 영재기업인교육원

학부모 감사글
3기 손영락 학부모

“엄마, 나 여기 정말 가고 싶어요. 아니 꼭 갈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가 가고 싶은 교육원이 있다고 다그치는 말에 무엇인가 살펴보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이라는 생소한 명칭에서 더 난감해졌습니다. 기업인, CEO라는 단어에서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영재교육원 중 처음 듣는 교육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아이를 보다가 무모하다는 생각에 학교 선생님께 좀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저를 설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이는 3년의 시간을 영재기업인교육원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기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모인 우수한 역량을 가진 형, 누나, 동기들이 많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외동인 아이에게 같은 기수 한명 한명이 멘토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밀감과 유대감은 깊었습니다. 포스텍 교육원의 모든 기수뿐만 아니라 연합 캠프를 통해 만난 카이스트의 교육원생들과도 끈끈한 우정으로 뭉쳐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맥은 누가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교육원이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테니까요. 오프라인 교육이 있게 되면 시작 전부터 끝난 후까지 감동과 흥분의 여운을 보게 될 정도입니다. 특히 CEO 강연이나 글로벌 인재포럼에 참여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는 아이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교육원의 교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의 사고가 틀에 매이지 않고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꿈과 비전이 명확해졌으며,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것에 있어 주저하는 면이 없어졌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아이는 슬럼프를 겪거나 실패를 했을 때 크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위기와 실패에 대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지금은 실패를 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보니 이 부분에서 미흡했던 거 같아. 다음에 다시 도전할거야! 좀 더 연구 해봐야지.'라며 웃으며 대처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는 여유 있는 모습에 흐뭇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감사하는 부분은 바로 상담에 대한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자유로운 아이가 학교생활을 숨막혀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갈등하고, 자신의 진로문제를 고민할 때, 공감하기 힘들었습니다.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과 틀에 박힌 환경에 익숙한 저로서는 불합리한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안주보다는 변화를 꿈꾸고, 남들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가려는 아이가 버거웠고, 아이의 생각이 맞을 때도 박수쳐 줄 용기는 없었습니다. 사춘기까지 겹쳐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아슬아슬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때마침 상담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고, 우리는 오프라인 교육 때마다 학생 상담과 부모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의 전문상담 선생님과 포스텍 교육원 선생님들께서 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과 격려를 해주셔서 아이를 함께 키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는 대학과정을 남겨놓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떤 기업인으로 세상에서 활약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열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행운에 감사드리며, 다른 학생들도 영재기업인 교육원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탄탄한 교육 속에서 든든한 아들로

창의적인 기업인을 양성하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학부모 감사글

1기 이준수 학부모 / 이 종 탁

준수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지원하고 합격한 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뿌듯한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준수가 경험했던 교육은 그 동안 학교에서 겪어왔던 교과서 위주의 교육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준수가 교육원 교육을 이수하면서 뜻있는 교육원 동기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하여 활발히 개발하고, 토의하며, 협력하고, 고민하는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저 역시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 받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기업을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잘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보면서 깊이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준수는 교육원을 통해 좀 더 열정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원의 전담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창의적으로 달라졌으며, 예전과는 다른 문제 해결 능력과 진취성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수의 변화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준수는 교육원에서 공부하면서 교육원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불투명한 장래에 불안해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단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고, 기업이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기성세대보다 더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성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현재와 미래에 어떤 공부를 해서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진 것을 보고, 교육원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이 아이들에게 기업을 창업하여 CEO가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가정과 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교육원도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훌쩍 자란 아이들을 보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꿈은 키워야 보배

꿈을 키워주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학부모 감사글

1기 장세운 학부모 / 김 은 정

“엄마, 합격이야 합격!”

그날, 그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뻐뻐합니다. 전국에 재능 넘치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곳에, ‘우리 세운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원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도 세운이는 고1 겨울방학 때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생으로 입학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재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세운이는 무조건 “과학자가 되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원 교육을 받은 지금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멋진 기업가의 꿈을 꾸고 있으며, 자기가 멋진 기업가로 성장해 있으면 대학에서도 교수로 초빙해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등 더욱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활에서도 기업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교육원에서 배운 적정 기술을 토대로 아이템을 구상하며 기업가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비전, 열정, 정체성, 학습능력,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엮여야 하는데, 세운이는 교육원을 통해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모아 연결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원 교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 각 개인의 적성 검사와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1대 1 상담을 해 주었던 일입니다. 세운이는 상담을 통해 힘든 고등학교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진로와 사업 아이টে에 대해서도 상의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원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벤처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에게 꿈과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배움을 향한 한걸음, 한걸음

길을 열어주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학부모 감사글

1기 이 호 학부모 / 김 한

예전에는 이호가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시도하는 등 자만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교육원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과제를 수행하고, 강연을 들으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영재교육원들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었지만, 완전히 다른 체계였습니다. 현재의 심화된 지식이 아닌, 미래를 보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해주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가 교육원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고 지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호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첫 집중교육이 지나고 제 아이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찾으려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지식이 아닌 스스로 원해서 지식을 함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궁금증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생각을 키워주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학부모 감사글

3기 오주영 학부모 / 김 남 희

지금도 첫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두근두근했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원을 통해 아이의 책장에 늘어난 책들을 보면 너무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교육원 입학 초기에는 교육 필독서를 보면서 ‘중 2가 과연 끝까지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관련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줄까지 그어놓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책을 다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딸 아이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암기식 공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즐거움과 지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가는 모습이 보기에 기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딸의 생각주머니가 커지면서, 중학생이 늘 접하고 좋아하던 분야의 책만 읽던 막내동이가 아니라 제법 ‘꿈, 가치관, 소명’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교육원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앞으로의 인생계획, 진로고민, 진학 문제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경험하면서 하나씩 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가장 좋고 변화된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꿈을 찾아가는 조약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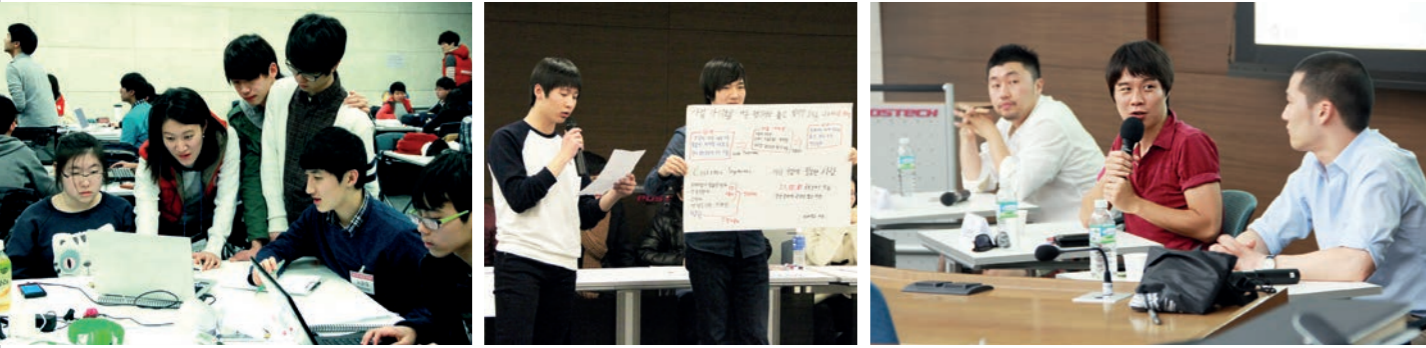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학부모 감사글

4기 손종우 학부모 / 김 영 숙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밤새 만들고 실패하면서 다시 구상하는걸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나?’, ‘우리 아이를 제대로 이끌어줄 교육기관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확고한 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교육원을 통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조사하는 등 관련 역량을 갖추어 가는 과정을 밟으며 힘들다는 말 한번 하지 않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의 교육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칫 타고 가야할 기차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놓치더라도 꿈을 찾는다면 다른 교통편을 찾아 아이가 현명하게 길을 찾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꿈을 찾는데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과 함께라는 걸 알기에 어리석은 염려는 이제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와 인재, 그 인연의 끈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길,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격려글

(주)레인디 대표 / 김 현 진

13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무작정 업계 대표들을 만나러 다녔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호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준비하면서 업계 유명인사들의 도움과 조언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저의 꿈을 알아봐주고, 저의 꿈과 함께 할 팀을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도 함께 해 줄 사람이 없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쉽게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뜻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만나는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뒤늦게 스마트폰과 트위터에 빠진 저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인재를 선발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레인디의 자회사인 레인디 게임즈의 핵심 멤버들을 트위터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소통의 도구가 생기게 되니, 그야말로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 자체가 새로워졌습니다. 13년 전, 수소문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편지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던 것을 생각하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11년도에 인연을 맺게 된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의 친구들은 행운아임이 틀림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기업가를 꿈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유년시절과 비교해보니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제가 왔던 길의 반은 이룬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육원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 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학생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 받고 사람 때문에 다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레인디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도 생면부지의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 사업도 20명의 처음 만난 젊은이들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런 인연은 국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플레이스트리트라는 인터넷 스트리트뷰 사업을 할 때는 처음 만난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과 인연이 이어져 함께 꿈을 만들어 갔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단 한 번 만난 적 없는 새로운 인연들이 지금은 꿈을 현실화하는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고 인연을 맺는 무대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도전을 알리십시오. 나와 함께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화 할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며, 아마도 우리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 친구들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CEO,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현장,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격려글

POSTECH 입학사정관 / 권 성 철

지난 2012년 가을,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큰 포부를 지녔던 창조적인 영재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불과 16살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기업인이었지만, 그의 비전과 목표를 듣고 공감했던 그 순간은 아직도 가슴 떨리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와 4기 선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POSTECH 입학사정관 권성철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을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수학, 과학, 또는 언어 등의 기본적인 교과목의 학습 제공에 머물렀습니다. 더구나 많은 영재 관련 프로그램들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특수목적 등의 유명 고등학교 진학, 나아가서는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혁신의 대표주자인 POSTECH과 특허청이 어떤 기관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인 배출을 목표로 2009년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영재기업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취지를 내세운 만큼 교육체계와 프로그램 구성이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업 능력과 화려한 경험을 우선시하지 않고 꿈의 크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을 가장 크게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한 학생들을 10~20년 뒤 미래 한국의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 본 교육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 및 겨울방학 때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초롱초롱한 눈빛의 교육원생을 볼 때면, 모두 자신감에 넘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인류에 공헌하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또한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양성되고 배출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POSTECH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교육원생 중 몇 명은 POSTECH 학생으로 입학하여 이제는 같은 포스테키안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바쁜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을 텐데도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방향 동안 휴식을 뒤로한 채 교육원 조교로 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인솔자로 교육원 후배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또 프로그램의 선배로서 늦은 시간까지 자신들의 경험을 전달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교육원 선배로 만난 그들은 이미 CEO로서 미래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원의 문화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이 아닌, 다양성을 기반으로 구성원 사이의 배려와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및 생활태도를 추구하는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은 아직 짧지만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좋은 문화를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 지식재산기반 사업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교육원생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